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2024 3 월 3 일 오늘 17:20 에
로마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 공동체에서
안토니에따 마리아 세라피나 산투스 수녀님이
95 세 64 년 수도 생활을 끝으로 선종하셨습니다.

수녀님을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에 의탁하며 오늘 본기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안토니에따 수녀님께서 사목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선한 목자의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살도록 십자가의 지혜를 주십시오.

안토니에따 수녀님은 1929 년 1 월 10 일 세딜로에서 탄생하였고, 같은 해 1 월 17 일 세레자 요한 성당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1956 년 8 월 23 일 알바로 라지알레 모원으로 입회하여, 1958 년 9 월 2 일 수련기를 시작하였습니다. 1959 년 9 월 3 일 마리아 세라피나라는 수도명으로 첫서원을 합니다. 첫서원 후 트랑스아파 공동체로 파견되었다가 5 년후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으로 돌아서 1964 년 9 월 3 일 종신서원을 합니다.

안토니에따 수녀님은 깊은 신앙심과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숙고하는 사람이었고 관대하고 기쁘고 책임감 있고 희생할 줄 알았으며 평온하게 모든 순간을 지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고 공동체 안 밖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겸손하고 진실되게 표현하였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루는데 개방적이었습니다. 사목적 직무를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살았으며, 어디에 있든지 친교를 일구어 냈습니다.

수녀님의 나눔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 모두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임을 봅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목자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믿습니다.”라 쓴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롭게 살고, 삶으로 증거하는 공동체가 사도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종신서원 후 여러 본당에서 사목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가정 사목에 관심을 두었고 여러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선교를 하였고 여러 공동체에서 원장으로 지냈습니다. 1965 년 바리, 1966 년 로싸노, 1971 년 크로시아, 1980 년 알바노 모원, 1984 년 오리스타노, 1995 년 로마 총원, 1997 년 크로시아, 1997 년 오리스티아노, 1999 년 사마씨, 2002 년 리카디, 2008 년 알바노 라지알레 관구에서 지냈습니다.

안토니에따 수녀님은 2009 년 망설임없이 관대한 마음으로 알바니아 스쿠타리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수녀님은 선교사 정신뿐만 아니라 80 이라는 나이와 언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수녀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안토니에따 수녀님은 알바니아에서 매우 개방적이고 관대한 마음으로 수녀님들을 도와주는데 발벗고 나섰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건강조차도, 수녀님에게는 함께

사는 수녀님들이 평온하게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요리와 집안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면서 빠스또렐라로서 자기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2011년 알바노 라지알레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 공동체로 돌아와서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다양한 봉사를 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연로하고 병고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녀님을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수녀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관대하게 돌보아 주신 수녀님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토니에따 수녀님에 대하여 동료 수녀님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손이 필요하면 언제나 손을 내밀어주었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수련기 때 수녀님의 현명함과 성숙함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룹에 긴장이 있을 때 조언을 하고 이끌어가는 큰 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과 자신의 빠스또렐라 성소와 사랑에 빠진, 말 그대로 선한 빠스또렐라였습니다. 항상 미소를 지었고, 모든 이를 받아들였으며, 본당에서 그리고 알바노의 수녀님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형제들의 필요에 팔을 걷어붙이는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과장하지 않고 긴장을 풀게 하는 미소로 화해하게 하였습니다. 쓸데 없는 말이나 비판을 좋아하지 않았고 일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수녀님에게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와 상황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즈음에 수녀님이 좋아한 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말을 못할 때까지 무한히 끝없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수녀님의 고통 속에 있었던 마지막 시기는 침묵 중에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수녀님의 현존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였고 숙고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수녀님의 천사들을 모시고 수녀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안토니에따 수녀님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에 당신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였던 것에 감사드리고, 전쟁의 파멸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친교를 사랑하는 당신의 겸손한 마음으로 인류 가족을 위하여 중재해 주기를 청합니다.

2024년 3월 3일 사순절 제 2주일

로마에서

총원장 아민타 사르미엔도 푸엔테스